

일주문



정소년육성대상 추천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최근 2004 대한민국청소년육성대상을 제정하고, 10월 2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02)2667-0471



직지사 천불부처님 개회불사 김전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은 10월 28일 오전 9시 경내 천불전에서 천불부처님 개회불사 점안식과 관등법회를 봉행한다. (054)436-6174



광주신행단체장 간담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은 10월 12일 사암련 불교회관에서 '광주신행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매일 한 차례 경례화하기로 했다.



자원봉사단 창립법회 경북 성주 선석사 주지 선문 스님은 10월 17일 이웃과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단 창립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광주종교인평화음악회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광민 스님은 10월 19일 무가사 야외특설무대에서 '제5회 광주종교인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062)376-3233



자비의 일일찾집 개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소총한 합창단은 10월 19일 광주 연다원(무가사)에서 독거노인들이 '차한잔에 자비 일일찾집'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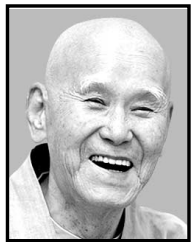


日서 관음도 주제 개인전 도예가 임남재 씨가 10월 22-24일 일본 청삼시 메주리 회관에서 관음보살도 등 30여 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을 갖는다. 011-337-1134

육주당 호명 스님 12일 입적

14일 통도사서 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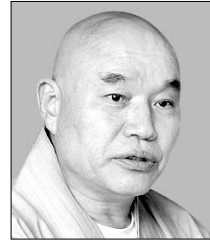
10월 12일 통도사 시탑전에서 입적한 육주당 호명 스님(사진) 영결식이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당으로 14일 시탑전에서 봉행됐다. 법랍 66세, 세수 90세로 입적한 호명 스님은 1938년 원통사에서 포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7년 이후 재가불자들의 공부모임인 공심회를 지도하는 등 법문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후학들을 이끌어왔다. 스님의 49재는 초재(18일) 통도사, 2재, 3재 조계암, 4재, 5재는 영명사, 6재, 7재는 통도사에서 열린다. 천미희 기자



무비 스님, 정각·무애 스님에 전강

여천 무비 스님 전강강택 전수 법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다. 범어사에서 전강 법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법회를 통해 무애 스님과 정각 스님이 무비 스님의 강맥을 잇게 됐다. 월정사 탄허 대선사로부터 강맥을 이어받은 무비 스님이 전강법회를 연 것은 2년 전 송광사에 이어 두 번째. 이날 강맥을 전수받게 된 전강제자 무애 스님은 86년 해인사에

서 출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대만 불학연구소에서 5년간 불학을 연찬,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또한 정각 스님은 86년 송광사에서 출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바라나시 힌두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동국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무비 스님은 조계종 승가대학 원장 등을 역임한 대강백으로 능히, 현진, 용학 등 9명의 전강제자를 두고 있다. 천미희 기자



무비 스님



정각 스님



무애 스님

“한·일 두나라 상생 모색하는 자리”

국제 심포지엄 여는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홍윤식 소장

“상생은 서로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관계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홍윤식 명예교수(사진)는 상(공)생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1세기 한·일 간의 상생(공생)을 위한 諸문제’를 주제로 제3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10월 30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홍 소장은 “상생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 경제·종교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일본·독일의 학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 고영섭(동국대), 김도형(계명대), 김영필(아주대) 박사, 일본 측에서 이시가미 겐오 교수, 독일 루트비히



홍윤식 소장

막시밀리안대학 플란트 피취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우리는 일본에 고대문화를 전수해 줬다는 의식이 강하고,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오만함이 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서로의 편파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260-3512

조용수 기자

고국 스님 초청법회 자주 열터

홍콩 한일불교협회 서병길 회장



“외국에서 불자로서 수행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신심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개종을 하는 상황이지요.” 전국제전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 선수단을 이끌고 10월 8일 한국에 온 서병길 회장(사진)은 홍콩 한일불교협회 회장(47, 전국제전 홍콩선수단 단장·사진)은 홍콩 불교계 교민들의 사정을 이렇게 전했다. 서 회장은 “현재 홍콩 교민은 약 6천여 명인데 이중 불교인은 300명 정도며 그러나 불자들의 수행활동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콩한일불교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위원회 조직을 갖추고, 한국에서 스님을 모셔와 법회를 보고 있다. 법회는 초하루 보름 법회, 수요일 거사님을 위한 법회, 월 1회 어린이 법회가 진행된다. 또 지난달부터는 홍콩 중심가 아파트를 개조해 마련한 홍콩원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배지선 기자

컴퓨터그래픽 사용 기법 세련

제20회 불미전 대상 어수경 씨



“지난해 미국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와 조계사를 방문했는데 그때 본 사찰의 느낌을 텍스타일 공예기법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이번 작품 ‘반야심경’입니다.” 10월 11일 제 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수경 씨(35·사진)는 자신의 작품 제작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김병호 서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한 어씨의 ‘반야심경’은 넓은 천에 경전 글자를 촘촘히 새겨 넣었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에서 다소 열세에 있는 공예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바로 어씨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기법 때문이다. 어수경 씨는 서울여대 공예과를 졸업한 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 도시계획과 디자인과정, 2003년에는 메사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 섬유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어씨는 조선대 미술과에서 공예를 강의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법흥왕에서 월산 스님까지 추모 불국사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성황

불교를 국교로 승인한 신라 법흥왕, 불국사 조대주지 표훈대사, 전생부모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강건한 김대성대사, 불국사 복원에 나선 박정희 전대통령, 선원 강원을 세워 명실상부한 수행처로 격상시킨 월산 스님. 이들 다섯 분의 추모제가 호국영령 및 선망영가를 위한 천도식, 그리고 예술제와 함께 봉행돼 돌아가신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10월9일 불국사주지 종상 범영류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경주 불국사의 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32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하는 모습.

불국사와 경주시(시장 백승삼)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32회 신라 불교문화 영산대재(이하 영산대재) 개막 법요식은 풍성한 공양물 앞에 다섯 분의 커다란 진영을 모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은혜사 주지 법사 스님, 중앙총회 부의장 법조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사 스님과 말사 주지스님들, 경북도부지사, 경주시장 등 기관장과 신도 등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장엄하게 진행됐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에서 “이러한 대재의 인력이 지구촌 곳곳에 퍼지고 싶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기원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종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오늘 우리들은 불국사 정토를 이루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usun@buddhapia.com

부산불교련, 사명대사 394주기 추모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0월 9일 초유 어린 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흥제존자 사명큰스님 제 394주기 열반일을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혜홍 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동참했다.

마애불 천년미소 한자리서 감상

고영배 기자 ‘...경주 남산展’ 11월 13일까지 강화 전등사



본지 고영배 기자(사진 왼쪽)가 전시회에 선보인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팔마다 세워진 수많은 불상과 불탑들로 지상의 불국토라 불리는 경주 남산. 그 남산의 불상을 소재로 한 고영배 기자(본지 사진기자)의 ‘부처님의 숨결, 경주 남산 사진展’ 개막식이 10월 9일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에서 열렸다. ‘칠불암 마애삼존불’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미륵굴 마애여래좌상’ 등 경주 남산에 산재한 불상 20여 위의 사진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주말 가을 산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남산미륵국석불좌상(보물136호)’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목조 건축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등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레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방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 전용(부식)방부제 • 기타 공사 • 목재 방염 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대)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누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미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개가리 소원증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셔서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 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주지 헤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발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④ 월 · 화반 ⑤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은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경,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더 빠르!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 가격: 1Box(4.4x4.4) (4인분) 016-562-3533

불사도움주실분 턱, 목, 어깨, 척추, 허리 골반, 통증, 짝다리 기공 조정, 활법(육진법) 무극스님 011-817-3387

저는 조계종의 혜당스님입니다. 2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열어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거의 2년간 고생하다가 오산경기도 아산의 도성사 도성스님으로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 같은 사람도 이 또 있다며 불타고 싶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성스님은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께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016-562-3533

조계종스님 설립 도시교통 중심지 90명 포교원을 투명하게 평생동안 관리 운영할 비구, 비구니 스님이나 아니면 은사스님을 섬기며 운영 관리할신있는 비구 전당 상회를 원함. 그리고 40~50대 공양주 구함. 부산설법원으로 연락. 051)441-1430 054)653-1180 지장보궁 내원암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3세 비구 017-515-7527

기도스님 모심 조계종 도심포교원 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505-200-2233